

12월14일(월)/사도행전1:1~5

제목: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1절)라고 하며 사도행전을 시작한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가리킨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고난, 부활, 지상명령,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승천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2~5절). 사도행전은 다른 특별한 책이 아니라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일들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다. 사도행전 안에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일들을 빌립, 베드로, 바울이 이어서 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타인들의 이야기”로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이중의 감정 즉, 희망의 감정과 부끄러움의 감정을 가진다. 예수가 어떻게 그 미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희망의 감정을 가진다. 또 하나는 여전히 순종치 않고 움직이지 ‘나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러한 감정과 각성이 없다면 이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12월15일(화)/사도행전1:6~11

제목: 잠시 자리를 비우신 예수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사람들이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6절).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기한은 교회의 알바가 아니라고 하셨다(7절). 그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날과 시를 미리 점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는 그런 일 대신에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라고 하셨다(8절).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9절). 그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올려져 가시니”에서 “올려져”라는 표현은 그가 구름으로 너머로 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가현적이고 한정되고 제한된 삶을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이다. 인간 예수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으셨다. 그의 육체는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곧 그는 영으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그가 하늘 어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 속에 내주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다.

12월16일(수)/사도행전1:12~14

제목: 성도는 기질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뒤 돌아온 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과거 복음서에서의 분류한 제자들의 명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짝지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집단으로 되어 있다. 안드레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제자들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요한은 시인과 같이 이상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 빌립과 도마가 언급되어 있다. 빌립은 모든 것을 믿으며 기꺼이 그 집단의 가장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던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나 도마는 매사에 증거를 요구하거나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의심 많은 인간이었다. 이 둘이 한 짝이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기질상의 불화를 상쇄시키고 그들을 서로 어울리게 했음을 암시한다. 이는 우리도 우리와 기질이 맞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지내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12월17일(목)/사도행전1:15

제목: 소수가 일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셨다(15절). 여기서 제자의 수가 120명 정도라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크리스찬이 120명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약 400만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이 통계를 토대로 볼 때 당시 크리스찬은 팔레스틴 인구 3만명 중 하나 정도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소수의 크리스찬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행1:8).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일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극히 미미하고 소수의 크리스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공장, 사무실, 학교, 모임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항상 소수가 일을 내는 경우가 많다.

12월18(금)/사도행전1:16~20

제목: 바겐세일

베드로가 가롯유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 가롯유다는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공동체에서 중요한 직능을 가진 사람이었다(17절).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은30냥의 돈을 받고 매매해 버렸다. 은30냥은 약 만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역사상 사람의 몸값으로는 가장 헐값에 팔아 넘긴 대 바겐세일이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눅6:12~13). 가롯유다도 그렇게 뽑힌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할 만큼 요긴한 사람이었다(요13:29). 그러나 그는 이제 인간 중 가장 흉악한 이름을 역사에 남겨놓고 말았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아마 평화를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거스리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헐값에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종종 단돈 만원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다. 우리도 종종 사소한 시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내팽개치기도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헐값에 바겐세일 하는 것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